

'종족이념' 통해 본 한국적 가족문화

「한국의 家族과 宗族」 펴낸 李光奎 교수



이광규 교수.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 3국의 가장 두드러진 문화적 특징 중의 하나로 '가족주의 문화'가 손꼽힌다. 수많은 직계, 방계 가족들로 구성된 이들 민족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혈연중심의 친족문화를 형성하면서, 나름의 독특한 문화양식을 진승해왔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또는 개화기 이후부터 가중되기 시작한 서구문화에 대한 '개방압력'은 서서히 우리문화를 일종의 빛깔없는 '혼합문화'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 전세계적인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는 이즈음, 전통적 가족문화의 해체, 여기에서 파생되는 고유의 가치관과의 마찰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서구문화의 유입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한국적 수용'의 불안 전향에서 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광규교수(58, 서울대 인류학과)가 최근 펴낸 「한국의 家族과 宗族」은 '가족'을 통한 한국문화의 유형분석을 시도, 그 현대적 의미까지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60년대 이후 과학과 기술에 수반된 서구의 사상과 문화는 특히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평등주의 사상에 편승하여 우리의 전통적 상하질서 이념에 도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개인주의의 자각으로 전통적인 가족주의에서 이탈하려는 원심력에 있다기 보다, 산업화로 가족자체가 전통적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가족과 친족제도에 미친 영향으로 이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우선 向都離農현상, 핵가족화, 산아제한으로 인한 가족의 '小人數化', 친족이나 이웃과의 유대가 희박해지면서 생기는 도시 가족의 고립화현상, 그리고 소집단화된 가족구성원간의 심각한 이질감, 무력화한 가족에 종속인으로 화한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생기는 과중한 부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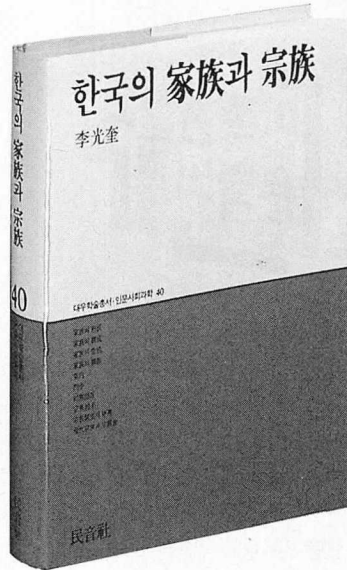
다행히도 요즘은 그동안 근대화의 장애요인으로 생각하던 가족주의에서 현대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교수는, 이때의 가족주의란 "전통적인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공생의 원리로서의 도덕성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족을 통한 한국문화의 유형분석

그간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韓國家族의 心理問題」 등의 저작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작업을 벌여온 그는, 이번 저서에서 최근까지 간행된 자료와 연구물들을 최대한 집성하고, 특히 가족에 관한 부분에서는 인류학이나 사회학뿐만 아니라 법학, 여성학, 가정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인접과학의 연구결과들까지도 수용, 폭넓은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저서는, 현상적인 문제보다는 한국가족과 종족의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여러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 전문 연구서입니다. 따라서 경험적 자료를 중요시하는 인류학적 입장과 문헌자료를 정리하여 근원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역사적 입장에 더 큰 비중을 두었지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편인 가족편에서는 혼인제도에서부터 고부관계, 상속제도, 분가제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가족제도의 대표적 특성을 다루어 종족이념이 한국 가족의 구성과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으며, 제2편인 종족편에서는 堂內(집안), 門中, 동족부락 등의 조직과 기능, 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들의 특징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그것들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종족체계의 이해를 위해 한국인의 姓氏, 本, 派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가하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가족을 포함한 한국의 친족조직이 어떤 것이며, 그 기본구조로서의 친족체계원리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한국적 친족제도를 한국적인 것으로 만든 기본적 정신 내지 원리는 바로 '종족이념'입니다."

종족제도만큼 한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없다고 재삼 강조하는 이교수는, '종족이념'이란 문중과 당대 같은 친족조직이 형성되고 기능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원리이자 유교원리와 가례를 중국에서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의 친족과 다른 형태를 갖게 하는 '변별점'이 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혈연적 父系원리와 혈연적 직계가족의 원리이다. 이번 연구가 주로 17세기 이후 근대화 이전의 조선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父系親의 조직과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사료의 보물창고' 규장각서 파문혀 지내

이번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이교수는 안동, 하동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가문을 일일이 답사하는 한편, 17·18세기의 가족의 규모나 결혼·상속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대의 '보물창고'인 규장각에 파문혀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로 하여금 '민족지적 실증적 연구'에 몰입하게 한 직접적인 계기는, 연전에 중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가족 비교'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만난 어느 중국 학자의 코멘트였다. 이교수의 연구발표에 대해 그 학자는 "직접 보고 한 공부가 아니라 책을

통한 공부"라는 지적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84년부터 틈틈히 중국을 방문하면서 탄탄한 자료에 기초한 비교연구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문화에 있어 중국의 영향이 지대했음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문화의 가족제도를 현상적으로만 고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의식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벽돌은 가져왔지만, 그 지은 집은 전혀 다르다고나 할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중'. 동족부락의 일종인 문중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뽑힌 '門長'이라는 성취지위와 '종손'이라는 생득지위가 공존함으로써, 두 세력간의 선의의 견제와 대립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종손의 개념없이 형제간의 '평등권'이 보장되면서 장기간의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도 같이 펴내

한 문화의 기본원리는 전통적인 것에 더 잘 나타난다며 '뿌리모색'을 강조하는 이교수는, 앞으로 진행될 두 가지 연구계획을 의욕적으로 공개했다. 하나는 이번 저서에서 다루지 못한 현대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족부락을 혈연보다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자신이 도출해낸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마을'이라는 의미공간이 급속도로 붕괴, 변질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슬하에 2남1녀를 둔 이교수는 이번 저서와 거의 동시에,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집현전)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평소 대화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의례히' 어머니를 통한 간접적인 대화에 익숙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담았다고 씩스러워 하는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새삼 '가족'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소연 기자